

 금융위원회	<div>보도자료</div>			 혁신금융 더 나은 금융 원하는 금융
보도	2019.10.31.(목) 17:00부터	배포	2019.10.31.(목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담 당 자	금 종 익 서기관(02-2100-2811) 김 영 진 사무관(02-2100-2973)
	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김 대 현(02-2100-2790)		정 지 혜 사무관(02-2100-2794)

제 목 : 금융위원회, 『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』 실시

- 금융위원회는 「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」 기간(19.10.28~11.1)중 금융전산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.31일 17:00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실에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금융전산 재난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

1 개 요

- 금융위원회(위원장 은성수)는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(서울시 영등포구 소재)에서 2019년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금융전산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
 - 이번 훈련은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, 코스콤,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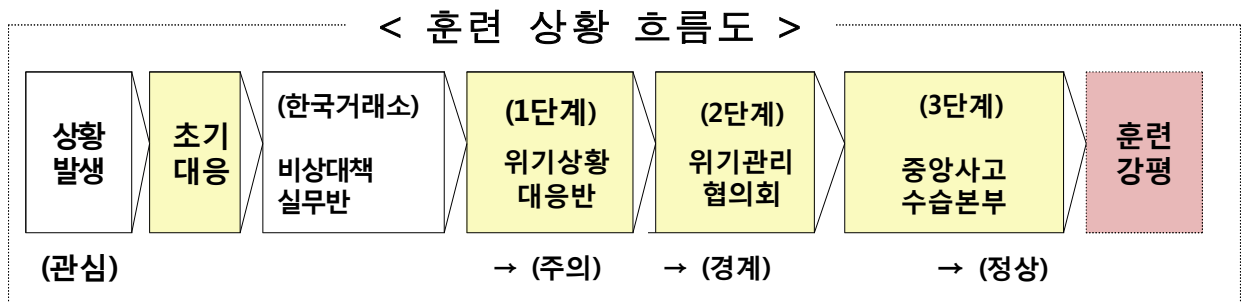
<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개요>

- 일시/장소 : 2019.10.31(목) 16:00~17:50, 한국거래소
- 훈련내용 : 지진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화재 및 전력공급 중단과 디도스공격 등 해킹공격의 동시다발적인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 점검
- 참가기관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보안원, 한국거래소, 코스콤, 한국산업은행, IBK기업은행, 한국에탁결제원, 금융결제원 등 9개 기관

- 훈련은 지진과 정전, 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한 금융전산망 장애 등 복합재난상황을 가정,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단계별 사고수습본부*를 구성하고 합동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

* 1단계 : 위기상황대응반, 2단계 : 위기관리협의회, 3단계 : 중앙사고수습본부

- 금융위원장은 “중앙사고수습본부” 회의를 주재하여 지진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재난복구 현장을 직접 지휘



2 주요 내용

- 국가기반시설인 한국거래소의 금융전산시스템이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파괴되어 장애가 발생한 상황*을 가정하고, 위기상황을 틈탄 해킹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

* 증권시스템, 시장관리시스템 등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이 파괴

- ‘상황발생 탐지-초동조치-재해복구’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장 및 토론훈련 실시로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회사의 실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
- 금융전산망 장애 상황 발생 탐지부터 한국거래소의 초동조치 후,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구성하여
- ‘금융전산위기대응매뉴얼’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 유효성 점검

-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“탁월함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일종의 예술이다”라는 격언을 인용하며, 이번 안전한국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
- 특히,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 사고 발생 즉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
 - 정부는 금융분야를 에너지·통신·의료 등과 함께 중요 ‘국가기반 체계’로 분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,
 - 이번 훈련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야 위기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
- 한편 금융위원장은 훈련을 마무리 하면서 최근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은 평상시에도 금융회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
 - 이번과 같이 실전과 같은 수준의 대비훈련을 통해 우리 금융분야의 보안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유관기관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

3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「금융전산 위기대응 매뉴얼」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전산 위기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
 - 또한, 금융전산 분야 복합 재난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

훈련
시나리오

1. 08시 30분, 서울지역 지진발생으로 금융전산핵심시설에 복합
재난 발생

- 발생기관 : 한국거래소, 코스콤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산업은행
- 피해현황 : (인명피해) 부상자 3명, (전산피해) 전산실 화재,
서버 5대 고장, ATM기기 12대 서비스 중단, 비상발전기 2대 고장 등
- ※ 서울남부지역 정전 → 대다수 금융기관 비상발전기로 전원 공급 중

한국거래소 : 자체 위기경보 '주의' 단계 발령
(코스콤 자체위기평가회의 및 비상대책실무반 가동)
금융위 : 금융전산 위기경보 '주의' 단계 발령
(금융전산 위기평가회의 및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 가동)

2. 지진 발생 후 피해복구 과정에서 09시 30분, 한국거래소 외 다수
금융회사에 전자적침해 사고가 발생

- (한국거래소) 50개 금융회사가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악성코드
감염으로 증권거래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로 증권시장 매매
업무 임시정지 조치
- (코스콤) 정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발전기 고장
으로 전원 공급 한계시간 내 복구되지 않으면 28개 증권사
업무 중단 예상
- 지진피해, 전자적침해 등 복합재난 발생 후 다수 금융기관이
연계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금융전산 피해 발생으로 재해
복구(DR) 센터로 백업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정부차원의 사고수습 총괄

한국거래소 : 자체 위기경보 '경계' 단계 발령
(한국거래소 자체 위기평가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가동)
금융위 : 금융전산 위기경보 '주의' → '경계'로 상향 발령
(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소집 / 금융전산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